

우정장학, '행정' 아닌 '취지' 쫓아야

상당한 우정장학 기준, 이유는?

이성민 기자 lsm1590@khu.ac.kr

양 캠퍼스의 소득분위별 우정장학금 지급규정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경희대 갤러리',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경희대학교 에브리타임' 등 학교 관련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12월부터 개강 전까지 지속적으로 양 캠퍼스의 우정장학금 지급액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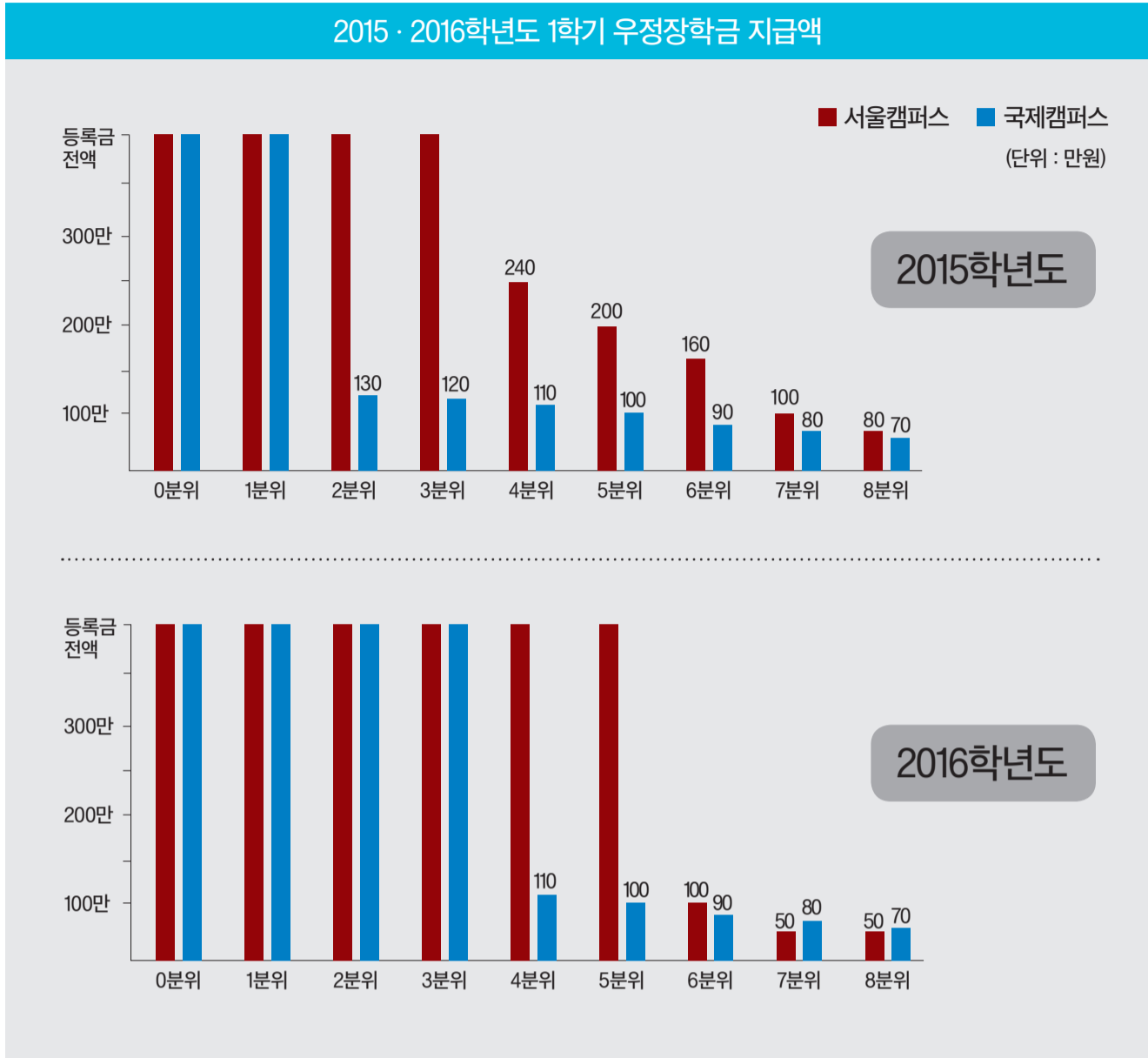
우정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 후 산정된 소득분위에 대응해 가계곤란 대상자를 상대로 우리학교 장학팀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복지 장학금이다. 현재 우정장학금은 서울캠퍼스(서울캠)와 국제캠퍼스(국제캠)의 장학팀에서 0분위에서 8분위까지의 소득분위에 따라 대상자에게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월 30일 작성된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의 12,421번째 게시물에서는 이 우정장학금에 대해 "2015년도 우정장학 지급안을 보니 국제캠과 서울캠 간의 장학금 배분이 심하게 다르고 실제 소득분위가 똑같아도 주는 금액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학기도 양 캠퍼스 우정장학금 서로 달라

이 같은 문제제기는 사실로 드러났다. 먼저 서울캠 총학생회(총학)가 지난 2015년 2월에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2015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서울캠에서는 직전 학기 학점 평점 2.4 이상을 기준으로 소득분위 0분위에서 3분위까지의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과 우정장학금을 합쳐 등록금 전액을 감면했다. 학점 평점 2.0~2.4 구간에서는 소득분위 0분위부터 3분위까지의 학생들에게 등록금의 80%를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국제캠은 사정이 달랐다. 직전 학기 학점 평점이 2.0 이상일 경우 0분위에서 1분위까지의 학생들에게만 등록금 전액을 감면했고, 2분위는 130만원, 그리고 그 뒤로는 1개 분위 당 10만원씩 차감한 액수로 우정장학금이 지급된 것이다.

우리신문은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2015년도 우정장학금 지급액에 대한 자료를 양 캠퍼스 장학팀에 요청했다. 하



지만 이 자료를 받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국제캠 장학팀은 자료를 바로 건네 준 반면, 서울캠 장학팀은 지난 3월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가 뒤늦게 자료를 전달했다. 자료 공개를 거부할 당시 서울캠 장학팀의 김선희 계장은 "공적인 일이 아니라 합부 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하는 서약서가 있어 소득분위와 관련된 자료는 외부에 노출시킬 수 없으며 장학 대상자 산정, 장학금 분 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렇듯 서울캠 장학팀의 입장은, 3월 직원 인사이동 이후 바뀌게 된다. 지난 3일 재 문의해 본 결과, 우지연 과장은 "그때 알려 드리지 못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며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우 과장은 "서울캠 총학

에서 (온라인상) 올린 자료를 직접 봤는데, 게시물에 올라온 지급안대로 우정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양 캠퍼스 장학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학기도 마찬가지로 양 캠퍼스 우정장학금 지급액은 상이했다. 먼저 이번 학기의 서울캠 우정장학금 지급액은 0분위부터 5분위까지의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전액을 감면했고, 6분위 학생에게는 100만 원을, 7, 8분위 학생에게는 50만 원을 우정장학금으로 지급했다. 반면 국제캠은 서울캠과 달리 0분위부터 3분위까지의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전액을 감면했고, 4분위 학생에게는 110만 원을, 그 이후로는 1개 분위 당 10만원씩 차감해 우정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처럼 지급내역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서울캠 장학팀은 "잘 모르겠다"며 "서울캠과 국제캠 지급기준을 정하는 프로세스가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캠 장학팀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제캠 장학팀 최문선 계장은 "산술적으로 보아도 인문·사회계열의 학생이 더 많은 서울캠은 국제캠에 비해 평균 등록금 액수가 적다"면서, 이 차이가 '전액감면'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평균 등록금이 약 314만 원인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많은 서울캠의 경우엔 소득분위가 1분위면 우정장학을 70만 원만 지급해도 전액 감면이 될 수 있지만, 평균 등록금이 약 430만원인 아·공·예체능 계열 학생이 많은 국제캠의 경우엔 소득분위 1분위

에 대해 최소 149만 원의 우정장학금이 지급돼야 전액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요인은 양 캠퍼스 간 소득분위 차이이다. 최 계장은 "서울캠 학생들의 소득분위가 국제캠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캠 학생들의 소득분위와 관련된 자료를 서울캠 장학팀 측에 요청했으나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보기 위해 우리신문이 양 캠퍼스 장학팀에 '2015학년도 소득별 국가장학금 수혜 인원' 자료를 요청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국제캠 장학팀은 자료를 제공했지만, 서울캠 장학팀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캠 장학팀의 김 계장은 "업무적인 일 이 아니라 제공할 수 없다"면서 "자칫 잘못 하면 이로 인해 양 캠퍼스 학생들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는 동일한 자료에 대해 "개개인의 소득분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상관 없을 것"이라는 국제캠 장학팀 측의 입장이나 "민감한 자료이긴 하나, 학교 측으로부터 받으면 사용해도 괜찮다"는 한국장학재단 측의 입장과는 크게 상반된 것이다.

우정장학, 행정시스템에 발목 잡혀 취지 무색

우정장학을 둘러싸고 이번에 학교가 보여준 모습은 학생들을 위한 모습이라고 보기 힘들다. 담당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거나, 정당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의 모습은 현재 우정장학에 대한 우리학교의 행정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장학규정에 따르면 본래 우정장학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가정환경이 곤란한 학생이나 천재지변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제도이다. 하지만 지금 양 캠퍼스가 우정장학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문제가 있음에도 해결책을 강구하기는 커녕 '행정'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가 전도된 모습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우정장학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면, 소득분위가 낮으면서 등록금 부담이 높은 학생들이야말로, 이 장학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다. 서울캠과 국제캠으로 나뉘어진 예산의 벽을 이유로 이들이 형평성에 어긋난 처우를 감수하고 있는 현실은 우정장학의 취지가 행정 시스템에 발목 잡혀 무색해지고 있다는 방증에 다를 아닐 것이다.

2016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및 실적등록 안내

2016학년도 1학기 자유선택과목 "사회봉사1,2,3"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 가능 학점: 성적부여 방식 P/F (2014학년도부터 P/F 모두 성적부여 가능) 나, 최대 취득가능학점: 학기당 1학점, 총 2학점 (단, 2007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최대 3학점)
- 사회봉사 학점취득 변경내용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항목	2012~2015기 이전	2016~1학기부터
취득요건	- 온라인 캠퍼스 이수 후 봉사활동 32시간으로 학점 인정	- 재휴학에 관계없이 입학 이후 실시한 봉사활동 32시간으로 학점 인정
인정기준	국공립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 불가능 ① 교외봉사: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서울동행프로젝트(http://donghaeng.seoul.kr),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www.wms.or.kr)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② 교내봉사: 교내봉사 및 단과대학에서 주관하는 봉사(단, 취업진로지원센터와 사전협의 되어야 함)를 실시한 경우 ③ 헌혈: 입학 후 실시한 본인의 헌혈증서 원본, 사본 및 VMS 헌혈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 문의: 취업진로지원처 (031-201-3061)
- 사회봉사 학점인정신청 및 실적등록신청

구분	교과목 이수 (학점인정신청)	실적등록
대상	2016-1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 학생	전체 재학생 및 휴학생
서류 제출기간	2016년 5월 29일(월) ~ 2016년 5월 26일(목) 17:00까지 *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일체 서류를 받지 않음	-
제출서류	1. 학점인정신청서 2. 봉사활동확인서 원본 및 사본 3. 소고문	-
- 제출서류양식은 <http://service.khu.ac.kr/> 접속 후 정보마당-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회봉사 관련 상세사항은 공식홈페이지 <http://www.khu.ac.kr> - [공지사항] - [일반]에서 반드시 확인
- 기타 세부사항: 봉사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한다. (같은 날 실시한 헌혈+봉사활동 실적 제출할 경우도 적용) 나, 헌혈증서 기준을 통한 봉사시간 인정은 입학 이후 실시한 헌혈에 한하여, 교과목 이수에 요구되는 32시간 중 총 16시간까지 인정 가능하며 연도별 인정시간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2006. 3. 1~2011. 2.28	2011. 3. 1 이후
헌혈증 1장 당 인정시간	15	8
		4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상담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상담실입니다. 벗꽃이 피어나는 이 봄, 행복한 대학생살라고 고민가요?

학생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 친구들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하고 싶은 친구들
자신을 좀 더 이해하길 원하는 친구들

언제든 학생생활상담실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나요?

1. 자신을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2.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질을 받습니다.

비밀 보장이 되나요?

검사해석 및 개인상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은, 비밀 보장을 가장 우선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1) 진로 및 학습검사
 - Holland 적성탐색검사: 능력, 적성, 성격 및 가치관을 고려한 나의 진로와 직업 알아보기
 - 연재? 나의 진로 및 적성이 공군할 때 알아보는 검사
 - U&I 진로탐색검사: 진로 및 흥미분야와 자신의 성격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 연재? 진로충미의 자기성향 및 시사할 진로 선택이 고민될 때
 - U&I 학습유형검사: 학습과 관련된 성격, 행동을 토대로 자신의 학습유형 파악하기
- 2) 심리 및 성격검사
 - 다면적 인성검사 [MMPI-2]: 자신의 행동 및 성격특성과 적응수준에 대한 이해를 도움
 - 연재? 나의 현재 심리상태가 공군할 때 (우울, 불안 등)
 - 기질 및 성격검사 [TCI]: 자신의 기질과 성격을 평가하여 나의 생각과 감정, 대인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도움
 - 연재? 자기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
 - 성격유형검사 [MBTI]: 자신의 성격의 강점을 알고 성격의 장·단점을 알아봄
 - 연재?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이해하고 싶을 때

상담받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내 문제를 겪어보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열서 힘이 되 온 선생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 좀 더 나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잘 알아차리고 존중해줘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었고 자신에게 불만이 많은 사람답게 추천해주고 싶다."

상담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 간: 오전 9시 ~ 오후 17시까지(점심시간 12-13시)
 장 소: 학생회관 218호 학생생활상담실
 연락처: 031-201-2806
 이메일: counsel@khu.ac.kr
 예약방법: 전화·메일, 직접방문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학생생활상담실